



김영환 의원

“도서관이 살아야 교육과 출판이 삽니다”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 펼치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

지난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는 <미(美)와 지(知)가 공존하는 공간 시화전>이 열렸다. 수익금 전액이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쓰이는 이 전시회를 연 주인공은 민주당 김영환 의원(45). 전시회에는 그가 지난달 펴낸 시집 <꽃과 운명>(푸른숲)에 수록된 시 40여편과 고영훈씨 등 중견화가 20여명이 기증한 그림이 함께 전시됐다.

“정치인이 시화전을 여는 것을 일반인들이 탐탁치 않게 생각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오히려 정치에 식상한 분들이 신선하게 느끼셨나 봐요.”

김의원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순수한 시들만 선정”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 천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고, 호응이 좋아 전시작품의 70%가 팔렸다.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다음달에 출범할 ‘(가칭)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에 기증할 예정이다. 김의원은 “이번 시화전 덕분에 도서관살리기 운동의 후원자도 늘었다”며 기뻐했다.

지난 1986년 <문학시대>를 통해 등단, 이번에 네번째 시집을 출간한 김의원은 1985년부터 5년여간 사회과학서점을 운영하는 등 출판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996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임기 4년 동안 지역구내 초등학교 도서관의 90% 이상이 활성화된 것이다. 김의원은 안산 다농백화점에 도서관 ‘책의 기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개혁과 정보화 사회 대비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그런데 전국 5천7백여개 초등학교에 있는 학교 도서관은 90여개에 불과하고, 학생 1인당 장서는 세권도 안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도서관구입비는 없고,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4년동안의 활동에서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올해 4월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의 노력은 국민연대 추진위원회의 모태가 됐다. 여기에는 김의원의 취지에 동감하는 한국도서관협회·한국사서단체연합·전국문헌정보학과교수협의회 관계자가 다수 참여했다. 국민연대는 발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국민적인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연대에서 김의원은 재원 확보와 정책적 뒷받침을 담당하는 ‘후견인’ 역할을 할 생각이다. 정치인으로서 “앞에 나서지 않겠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다.

“최근 정보화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 도서관에 경도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은 크게 보면 교육개혁과 출판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적이죠.” - 김정은 기자

온고지신의 미덕 갖춘 ‘추천 도서목록’

지성인들이 선정한 양서를 소개한 책들이 단행본으로 묶여 나왔다. <21세기@고전에서 배운다(전2권)>(김윤식 외 지음, 하늘연못)는 국내의 내로라 하는 문인 183인이 추천하는 ‘인류의 위대한 고전’을 소개했다. 이 책은 일연·김수영·노자·플라톤·보르헤르트 등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동·서양 278명의 저작 396권에 대해 책의 내용과 사상, 저술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183명의 독특한 독서체험이 유려한 문체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세계를 움직인 100권의 책(전2권)>(이기영 외 지음, 동아일보 출판국 엮음, 제3공간)은 국내 석학들의 추천을 받아 ‘세계 역사상 중요한 책 100권’을 수록했다. 사상, 역사·지리, 사회, 자연 과학, 문학·예술 등 다

섯 분야로 나뉘, 책의 주요 내용과 지은이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실었다.

1968년 <신동아> 신년호의 별책부록으로 간행된 책을 수정·보완해 펴냈다.

<중국의 지성 5인이 뽑은 고전 200>(왕연균 외 지음, 최중세 옮김, 예문서원)은 중국의 학자들이 직접 선정한 ‘중국어 도서 목록’. 양계초 등 중국학 대가 5인의 저서 8종에서 2회 이상 추천받은 책을 위주로 정리했다. 중국의 사상가·문학자·학자의 대표작과 중국의 전통적인 주요 경전을 망라한 것이 특징이다. - 김정은 기자

